

毛澤東思想의 中國的 實踐을 理解하기 위한 方法的 考察*

洪 廣 燁

I. 實證主義의 政治社會學의
諸方式

理論展開上의 毛澤東思想

III. 毛澤東思想의 東洋的 要素

II. 社會主義運動史上 및 그

IV. 結 語

十九世紀를 거치면서 거의 解體直前に 있던 中國大陸이 다시 일어나고 十億人口의 中國이 거대한 世界國家로서 成長하고 있음은 하나의 奇蹟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中共의 現體制樹立에 결정적 主人公이었던 毛澤東의 思想과 實踐을 分類 뿐만 아니라 說明해 본다는 것은 매우 意味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毛澤東思想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편으로 毛澤東이 公式·非公式의으로 내놓은 수집 가능한 모든 言辭와 論文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가 戰爭中 그리고 中共수립 以後 취한 제반 措施 및 決定이 해당된다.

毛澤東思想은 社會主義와 自由主義, 西歐와 東洋, 그리고 現在와 過去를 가로지르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가지 次元에서 문제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實證主義의 政治社會學의 方式

社會主義運動 歷史 및 그 理論展開上에서의 비교

毛澤東思想의 東洋的 要素와 그 意味

* 이 研究는 1986年度 文教部 共產圈研究支援金을 받아 西江大 東亞研究所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I. 實證主義의 政治社會學의 諸方式

우선 言語 및 歷史學 제통의 Sinology 라고 할 수 있는 연구업적 및 자료를 토대로 하고, 우리는 거기에 社會心理學, 政治文化현상, 比較社會學의 제반 이론 및 方法을 援用하여 毛澤東思想을 설명해 볼 수 있다.

實證主義의 方法論은 明證이 가능하고 數字的으로 환원이 가능한 data에서 출발, 그후 제반 설명틀 즉, 기계적, 유기체적, 수학적 model에 의하여 연관성있는 이론으로 재구성된다고 볼 수 있으며, model의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그후 그에 유사한 상황이 나타날 때 거기에 실천적으로 적용되고, 관련된 變數에 意圖的 개입 또는 조작이 가능하다고 추정된다.

여기서 Auguste Comte와 Emile Durkheim에 이어 行態主義 政治學에서 흔히 받아들이는 均衡論의 전제와 先進社會에만 우선적으로 타당한 Parameter의 적용은 變革과정상에 위치한 他文化권역에 어느 정도 適實性있는 통찰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한편 Dilthey에서 영향받은 Max Weber는 편협한 사회학적 객관주의에 대하여 歷史의 역할을 부각시켰고 또 마르크스주의의 경제우선원칙과 一元的 歷史觀에 대하여 上部구조의 역할 및 多元的 歷史觀의 중요성을 규명한 사회학자로서 中國에 관해서도 중요한 저서를 남겼다.¹⁾ M. Weber의 연구를 계속하여 Eberhard와 B. Moore 등이 좀 더 체계성있는 저서를 낸 바도 있으며,²⁾ 이들의 저서는 좀 더 마르크스 입장에 선 Wittfogel과 Samir Amin과는 달리³⁾ 宗教의 사회경제적 意義 또는 계급투쟁보다도 價値와 賦役배분에 관련된 사회계층간의 갈등, 지배계급이 시민·상공

1) Max Weber, *The Religion of China*, The Free Press, Illinois.

2) W. Eberhard, *Social Mobility in Traditional China*, Leiden, E. J. Brill and *Conquers and Rulers: Social Forces in Medieval China*, Leiden; B. Moore,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Boston, Beacon Press.

3) 慎鐮慶 編, 「아시아적 생산양식」, 까치社, 1986.

사미르아민 著, 조현태역, 「계급과 민족」, 미래社, 1986.

업자 뿐만 아니라 승려·지식인·관료들 포함하는 폭넓은 대상이라는 것, 따라서 民衆 및 被지배계층의 항쟁은 흔히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中心으로 하는 宗教社會的 양상을 지닌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社會變革에 있어서 主觀的 요소와 大衆 및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물론 社會變革이 그후 경제 구조와 국제적 여건에 관련되어 그의 항구적 成敗가 가름지어 지겠으나,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의 向方을 정하는 요인으로서 宗教的, 사회심리적 요인을 지적한 Weber 式的 관점은 소홀히 넘길 수 없는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마르크스주의와 최근 대두되는 사회심리학측에서는 매우 否定的, 冷笑的, 경계적인 입장을 취하고, 大衆主義와 관련시켜 지도자人格 주변에 맴도는 政治優位현상이 비판된다. 우선 社會心理學에서는, 大衆사회에 도래와 疎外감정에 기거하는 정치선전술이, 이데올로기의 힘을 빌어 진정한 사회변혁과 관계없는 정치운동과 대중지도자를 유발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⁴⁾

마르크스는 물론, 소위 政治的 英雄이 기실은 小부르조아利益의 대변자로서 지배계급 내부에 존재하는 分派를 統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의 저서 *Le 18 brumaire de Louis Bonaparte* 는 이러한 관점에서 나폴레옹 Ⅲ세 배후의 당시 프랑스內 계급투쟁 양상을 분석해 주고 있다.

사실, 毛澤東 자신은 리더십의 문제를 매우 중요시 하면서도, 權力이 하나의 정치가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에 사회주의자로서의 경계심을 지녔던 것 같다. 그는 秦始皇 以來 자신이 유일한 中國의 統一者임을 자처하였으며, 평소에 나폴레옹 등 고대 영웅의 행적에 심취하였다. 그러나 文化革命 행사가 한、열을 띠며 北京에서 진행되고 있을 당시 에드가 스노우가 “사회주의 국가에 왜 이와 같은 人格崇拜가 행해지고 있는가?”라

4) L. Hamon, *La Personnalisation du Pouvoir*, P.U.F. Paris, 1964. 또 R.G. Schwarzenberg, *L'Etat Spectacle*, Flammarion, Paris, 1977.

는 질문에, 毛澤東은 “나도 유감스럽게 생각되나 民衆이 복잡한 것을 이렇게 단순히 처리한다”고 대답했다고 한다.⁵⁾ 文化革命 자체도 實은 毛澤東이 어떤 특정개인이 아니라, 下層大衆과 젊은 世代에게 權力을 인계하려는 의도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本人 자신이 公言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科學的 客觀主義의 문제는, 비록 마르크스주의가 辯證法을 통하여 극복되었다고 하나, 완전히 성공적인 해결을 본 것은 아니며 그 이유로 해서 마르크스주의의 文化비판에 突점을 돌리고자 하는 시도가 A. Gramsci, G. Lukács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며, 최근 S. Avineri는 Engels가 마르크스를 경제학적 唯物論에 한정시키는 왜곡을 하였다고 까지 주장하게 되었다.⁶⁾

毛澤東은 시종일관 中國歷史와 思想전통의 맥락을 떠난 적이 없었으며, 그렇다고 그가 世界歷史의 前面을 주름잡는 社會主義的 革命家로서의 路程을 벗어난 것도 아니었다. 문제는 우리가 西歐科學的 實證主義의 편협한 안목을 견지하는 한 그 모든 문제를 모순투성이로 밖에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實證主義的 社會學方法論이 啓夢主義的이고 機械論的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편견은 그것이 西歐傳統 자체에 대하여 조차 심각한 沒理解를 露呈시켰다는 것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解析學에서 지적되게 된 것이다.⁷⁾ 그 외에도 深層心理學과 人類文化學에서 지적되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西歐의 부르조아의 合理主義가 前近代的 또는 封建的이라고 一舉에 배격해 버린 전통질서와 新舊적 사고방식이 고도의 文化수준을 표현하고 있고, 더 높은 차원의 人類愛와 共同體의식을 구현하였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⁸⁾ 外國 침략세력의

5) Edgar Snow, *La Longue Révolution*, Stock, Paris, 1973.

6) Shlomo Avineri, *The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of K. Marx*, Cambridge, 李洪九教授 譯, 가치刊, 1968.

7) M. Mauss, *Oeuvres Anthropologiques en 3 tomes*, Minuit, Paris, 1968. 그리고 J. Bleicher, *The Hermeneutic Imagination: Outline of a Positive Critique of Scientism and Sociology*,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Boston, 1982.

8) P. Clastres, *Recherches d'Anthropologie politique*, Seuil, Paris, 1980.

攻勢로 부터 스스로의 identity 를 지키고, 피상적인 西歐文物 模倣本能에 빠지지 않고 對內的 同質感을 조성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전통의 정치적 意義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여하튼 毛澤東現象은 리더십의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으며, 리더십은 觀念과 組織을 통하여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능력 즉 실증주의의 안목이 놓이기 쉬운 정치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리더십은 일정한 政治體系에 스며있는 價値規範에 대한 質的인 파악능력이며 흔히 카리스마적 지도자는 제반 區劃으로 分離된 상황을 接合시키고, 때로는 제반 特權的 中間媒體를 초월함으로써 靜態된 政治體系에 어떤 도약을 가능케 하여 준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와 마키아벨리는 그러한 능력을 Prudence 라고 칭하였고, 東洋에서는 易 또는 時的 개념으로써 지도자의 창조적 역할을 부각시켰다. 단지 이러한 이론들은 政治의 主體로서 民衆이, 그리고 正當性의 기준이 神이 아니라 科學과 理性에 의하여 측정되는 현대사회에서, 막연히 英雄에게 모든 역할을 부여하는 시대 착오의 개념이 되어버리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政治思想史, 구체적으로 社會主義運動史의 맥락에서 또한 우리는 毛澤東現象을 접근해야 할 것이다.

II. 社會主義運動史上 및 그 理論展開上的 毛澤東思想

實證주의의 그러한 접근방식에 비추어 볼 때, Hegel로부터 이어지는 마르크스와 레닌사상 그리고 理念運動으로서의 社會主義는 그 나름대로 通時的이고 고도의 相互聯關性이 있고 未來志向의인 설명을 가능케 해주기 때문에, 비록 資本主義的 市民사회를 겪지 않은 후진전통사회에서까지 그 호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그 나름대로 經濟的·機械的 還元유무에 빠질 위험을 지니고 있는데 中國의 歷史전통과 만날 때 그러한 문제점은 더욱 현저히 노정되었다.

毛澤東이 여러 면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비판했고, 遊擊戰爭時期에 소련과 코민테른으로부터 여러번 배격을 받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 그를 修正主義者라든지 Populist로서 부를 근거는 지극히 박약하다고 하겠다. 그가 마르크스-레닌사상을 매우 部分的으로 뒤늦게 습득한 것은 사실이다. 참고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北京大學 교수 Gu Liang이 파리에서 1983年 3월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中國에 마르크스사상은 다음의 경로로 소개되었다 한다.

1899年 王國公報에 마르크스의 人的 사함에 관한 간략한 소개.

1904年 日本에서 돌아온 梁啓超, 新民公報에 마르크스사상 소개.

1905年 朱執信이 民報에 「共產黨宣言」번역.

1919年 李大釗, 新青年에 마르크스 특집 게재.

1920年 北京大에서 “마르크스사상 연구회”가 결성되고, 「資本論」 제 1권 번역됨.

1920年 陳獨秀, 新青年에 레닌 특집 게재.

1920年 마르크스의 「임금노동론」과 Kautsky의 「계급투쟁론」, 「空想的 사회주의와 科學的 사회주의」 번역됨.

1930~37年 마르크스의 「資本論」 제 2, 3권 번역·출판됨.

1941~42年 延安에서 毛의 주도아래 마르크스사상 연구운동 전개됨.

1953年 黨中央委 결정으로 마르크스·엥겔스전집 50권 번역·출판계획 수립됨.

毛澤東은 1937年 「實踐論」과 「矛盾論」以外에 별로 社會主義理論 자체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고, 오직 現實的인 政策문제에만 논의를 벌였다.

한가지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中國共產主義運動 뿐만 아니라 毛澤東思想에는 처음부터 連延히 anarchist的인 緊張要因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문제이다. 이것은 사회주의운동 자체가 초기에 일반적으로 anarchism의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는 데 기인하기도 하고, 또 中國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마련한 당시 혁명가들이 日本에서 활동하고 中國에 들어 오면서 현저하게 anarchist 사상에 젖어 있었다는 데에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농촌이 압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中國의 상황, 또 농민을 革命의 주체로 보고자 했던 毛澤東의 전술적 입장에 대하여, 농민운동으로서 그 淵源을 지닌 anarchism 이 큰 호소력을 지닐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적 연관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脈絡에서 우리는 毛澤東의 不斷革命 이론과 文化革命 착상 또 그의 反官僚의 입장과 極貧하층농민과의 연계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Ⅲ. 毛澤東思想의 東洋的 要素

毛澤東은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中國的이었고 또 中國的이라고 하기에도 너무나도 마르크스주의자였다. 어찌보면 이것은 兩立 불가능한 모순을 毛澤東 자신이 止揚해 보려 하였던 이유에 기인되는 것 같기도 하다. 사실 마르크스주의 자체가 이론과 실천, 관념과 물질, 정신 노동과 육체노동, 도시와 농촌 등의 제반 갈등을 높은 차원에서 극복하려 하였던 것이었지만, 中國革命은 中國歷史의 독특한 모순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들을 극복해야 했다. 즉, 太古로부터 中國은 王道對 霸道, 性善對 性惡, 中央集權對 地方分權, 富國強兵對 文弱中華 등 서로 調整되기 어려운 모순으로 시달려 왔다.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이론은 사실 그러한 中國 본연의 모순해결을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보여졌음에 틀림없지만 毛澤東에게 그것은 또 西歐와 中國의 혁명적 경험과 요구를 결합시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毛澤東思想, 그것은 곧 西歐의 혁명전통과 中國革命전통의 결합을 의미하며 그것은 또 세가지 차원에서 고찰이 가능하다. 우선 毛澤東이 전략적·선전적 사유에서 전통의 권위를 빌어온 것, 둘째 中國傳統자체의 가치가 인정되어 그것이 接合된 것, 끝으로 무의식적 次元에서 이어지는 兩

者的 결합 다시 말하여 社會主義革命的 이름아래 나타나는 中國文化的 고유한 잔재적 요소의 표출이 그것이다.

1. 전략적·선전적인 要因

사범학교를 나오고 스스로를 교사에 즐겨 비교하였던 毛澤東은 자기의 革命的 言辭가 中國人에게 쉽게, 광범위하게 또 친근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歷史的 事例나 古史를 빌려 자신의 論旨를 전개하였고, 古風의 詩를 짓고 共產主義의 유토피아像은 大同에,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은 易經에 비유하여 論하였다.

毛澤東은 抗日해방전쟁中 戰爭의 技術的이고 強制的·物理的인 요인이 상으로, 그의 道義的 名分과 正當性을 부각시키는 이론적·윤리적 작업에 관심을 쏟았는데 이점은 매우 中國的인 面을 노정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가 1945年 8月 蔣介石을 向하여 發한 電文에서 蔣이 어떻게 中國國民의 生活苦를 가중시키고 名分없는 전쟁을 하는가를 고발하는 내용은 前漢書 第四年記에 보이는 劉邦의 項羽를 탄핵하는 方式과 매우 흡사한 내용을 지닌다. 또 毛는 군대가 民衆과 호흡을 같이하고 항상 民의 生業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命을 강조하였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요구를 荀子 第十五章 議兵論 속에 그리고 春秋左氏傳 成公 十三年記 또 襄公 三十年記에 보게 된다.

中國 古事에서 引用된 각종 이야기를 빌어 共產主義思想과 전략을 설명하려 하였던 것은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자 한다.

2. 中國文化傳統에의 의식적 귀의

毛澤東은 傳統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現實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였다. 유럽의 市民革命 당시, 또는 최근 신생국의 혁명세력이 봉건잔재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을 눈에 보이지 않도록 제거해 버리려는 태도와 그것은 좋은 대조를 이룬다. 毛는 물론 思想鬭爭을 좀더 內

面化하기 위하여 그러한 방식을 취하였던 것이지만, 始終 中國文化傳統을 뿌리 뽑으려는 태도는 오히려 西歐帝國主義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것으로 그는 판단하였기 때문에 中國의 과거에 깊이 심취하였던 것이다.

우선 사상투쟁을 內面化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그는 中國歷史를 새롭게 읽고 새로운 準據들과 기준에 입각하여 과거를 다시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毛澤東은 魯迅처럼 中國人이 스스로의 과거에 대하여 솔직하지 못하였고 美化하려드는 나르세시즘을 비판하고 그 자신의 醜하고 倭小한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일반에게 인식시키려 하였다. 한편 中國歷史를 통하여 빛을 못 보던 商人·工人 등 하층민과 제반 民衆反亂에 대하여 새로운 조명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유명한 역사소설을 통하여 中國 전통사회의 계급구조를 규명하도록 各種 弘報 活動을 권장하였다.

毛澤東은 비록 歷史家와 哲學家는 아니었으나, 歷史와 哲學의 정치적 역할을 잘 인지하였으며, 바로 이점때문에 기회가 있는대로 그러한 문제들을 내놓고 정치적 토론을 전개하였다.

이점에서 毛가 제기하였던 사상논쟁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예로서, 毛는 1942年 5月 23日 文藝에 관한 논의에서 人性에 관하여 그것이 마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修養의 문제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客觀的인 사회경제관계의 被造物처럼 보는 것이 정당하리라고 하였다. 毛는 또 人性이 教化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善하다고 보는 것은 民衆의 투쟁력과 경제심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경계하였으며, 특히 유교에서 상정하는 사회의 和合과 均衡의 이론은 계급투쟁원칙을 호도하는 이데올로기로 저주하였다. 한편 유교의 歷史家들이 歷史를 道德의 興起에 따라 구분하고 순환논법을 사용한 데에 반대하여, 毛는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歷史는 主觀과 客觀이 나선적으로 교차되면서 이성, 자유, 통일을 向하여 진전하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毛澤東은 中國歷史 또는 哲學전통 내부에 충분히 社會主義的 요소가 존

재하였다고 믿었으며, 특히 墨家·法家·孫子·荀子·司馬遷 등 史家들의 저작에 매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秦始皇과 法家사상은 매우 進取的인 내용으로 再評價되고, 歷代의 모든 농민봉기와 나아가 元나라, 淸나라 등 소위 오랑캐들의 統一과업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中國文化의 독특한 價値는 胡適·王莽 등 西歐를 예찬하고 中國을 경멸하는 듯한 소위된 지식인들에 대한 毛의 반박에서도 드러났지만, 毛는 누누히 西歐의 기술 우위사상 그리고 物質·觀念의 兩分理論에 불만감을 나타내었다. 특히 科學的 社會主義에 대해서도 그의 진리적 호용성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소련에서처럼 經濟的 修正主義와 黨官僚의 전제를 항구화시키는 의미를 지닐때, 그 모든 것이 毛澤東에게는 용납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에게도 東洋의 補完이 필요하다고 毛는 생각하였던 것이다.

(1) 表像을 중요시 하는 社會主義

마르크스주의는 매우 哲學性이 깊은 이론이나 그것이 정통으로 채택된 소련과 東歐諸國에서는 매우 단순한 경제개발원칙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문제는 A. Gramsci가 그 누구보다도 잘 지적하였는데, 그는 소련의 경우 社會보다 國家가 강하여 프롤레타리아가 國家기구를 장악하면 남은 일은 경제개발에 국한될 수 있을 것이지만, 伊太利나 프랑스 같은 곳은 國家보다 社會가 더 강하여, 國家기구가 석권되어도 부르조아의 社會는 곧이어 새로운 國家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이 경우 프롤레타리아는 지식층을 포함한 사회의 광범위한 제층과 연대를 형성하여 장기간에 걸쳐 사회전반에 집요한 文化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하였다. 毛澤東도 사실 이러한 문제에 민감하여 百家爭鳴 百花齊放, 排林排孔 그리고 文化大革命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식에서 그는 上部구조가 때로는 下部구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던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그는 소련의 경제우선주의를 신랄히 공격하였다.

(2) 科學보다도 革命을……

사실 氏澤東에게 있어서 부르조아라는 中間媒介자가 은거할 수 있는 방패는 表像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삼지 않는 社會改革이란 의미가 박약한 것이었다.

한편 프롤레타리아에게 있어서 科學的 사회주의를 포함하여 科學은 하나의 해방의 수단일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동시에 소의를 불러일으킬 요소로서 경계의 대상이었다. 적어도 中國에서 學問은 不平等과 억압의 도구였고 學者는 부르조아의 위치와 역할을 담당했음을 그는 소홀히 넘길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그는 비록 그것이 共產黨이라해도 社會主義라는 科學을 소지한 者는 民衆과 實踐에 의하여 계속 감독·통제받아야 했다.

더우기 科學은 西歐에서도 歷史성과 精神성을 모르는 形式論에 입각하여 있음을 헤겔의 변증법은 잘 간파한 바 있었다. 그러나 변증법 자체도 그것이 비록 마르크스-레닌에 의하여 實際 社會·경제세력에 관한 것이 되었다 해도, 그것은 M. Gödel의 不完全 公理원칙, C. G. Jung의 無意識의 次元을 문제삼지 않을 경우, 마치 宗教에서 처럼 信仰의 次元으로 굳어 버릴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적어도 中國에 있어 佛敎·道敎·儒敎의 철학은 論理를 절대적으로 간주하지 않는 유연성을 東洋人에게 마련해 준다고 말할 수 있으며 毛澤東도 은연中 이러한 영향을 그에 태도에 반영하였다 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3) 文句 보다도 意味를 살리는 社會主義

毛澤東은 1958年 3月 Chengtu 회의 연설속에서, “우리는 머리속에 항상 古典을 想起하고 그것을 再生하려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머리를 써서 自省하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니, 이것은 社會主義가 달성된 상황에서라도 그러한 主義가 도그마가 되어 버릴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한 것이었다.

科學제도와 漢文의 非民主的 性격을 잘 아는 毛澤東에게 있어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전통적으로 中國에서 生員들은 經의 암송, 註釋을 붙이고 字句의 考證에 모든 시간을 할애하였지 독자적으로 또는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작업은 멀리하였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더우기 經典은 國家에서 正統으로 선정된 것만을 채택해야 했고, 그 내용도 道德에 관한 것들이었으니 정신은 과거의 聖人에게로 쏠리고 實際에서 점점 멀어져 갔으며 民生에 관련성이 있고 民衆의 의식을 깨우는 내용이 생길 수 없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그에게 마르크스주의는 民衆에게 의식과 표현의 門을 열어주는 것이며, 표현이 자유로우려면 사회 및 歷史가 끊임없이 民衆에 의해서 문제로서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마르크스사상을 잘 번역하고 심지어 그 내용을 파악해도 실천이 그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또 비록 실천이 마르크스주의의 내용에 부합하더라도 그것은 맹종이 될 뿐 창조를 유발하지 못하고 관료적인 형태에 빠지는 경우가 흔히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毛澤東의 입장에서 볼 때 의식이 *texte*로부터 自由롭지 못한 데서 기인되는 문제였던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사회의 산물이다. 自由主義的 자본주의사회에서 思考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後期產物인 帝國主義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⁹⁾ “우리는 모든 것을 한숨에 들이켜, 내용의 의미를 분별 못하고 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外國에서 들어온 文物을 순전히 형식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과거에 많은 손해를 우리나라가 입게 되었다.”¹⁰⁾ “남을 비판하면 자신도 비판을 받아야 한다. 10月革命은 資本主義를 거부하였으나 그후에 社會主義 그 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社會主義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 한 社會의 上部구조가 사라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라고 볼 수 없고 宗教의 模寫라고 볼 수 밖에 없다.”¹¹⁾

9) *Oeuvres, Choiesies de Mao Ze-Dong*, t. I, p. 334, ed. en langues étrangères, Pékin, 1967.

10) *Oeuvres, Choiesies de Mao Ze-Dong*, t. II, p. 407.

11) *Unselected Works of Mas Ze-Dong*, p. 30, Union Research Institute, Hong-Kong, 1957.

이렇게 毛澤東은 말이나 文章은 우리의 경험적 현상을 밝혀주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것이 物神이 되면 의미의 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하나의 毛澤東思想은 그것이 아무리 神聖한 것이라 해도 일단 그것이 否認되고 소화될 때 그 내용과 의미가 살아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3. 中國전통의 無意識의인 영향

封建의이고 낙후한 과거와 결별을 선언하고, 또 排林排孔에 이어 文化革命을 시행한 中共과 毛澤東에게서 스스로가 意識못한 전통적 요소 그것도 부정적인 것이 남아 정치영역에 스며들었는 이야기는 매우 무모한 착상일 수도 있으며 특히 當事者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회피한 주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毛澤東의 발언과 政策 등을 고찰해 보면 그러한 착상의 적어도 일부분을 입증시켜 주는 그러한 자료를 만나게 된다.

우선 中國의 유교전통에 따르면, 政治는 有德한 君子에 天命이 따르게 됨으로써 文化와 仁에 입각하여 그는 政權을 받고 統治한다는 사상이 있는데, 이러한 이념은 政治를 生産樣式과 階級構造의 종속적 投影體로서 보는 마르크스주의의 입장과는 근본적으로 相異하다. 그런데 中共의 경우 革命家들은 戰爭의 승리를 통하여 天命을 얻고 德에 따라 政治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결코 政治가 經濟관계 배후에 선다는 인상을 주지 않았다. 비록 失却되었지만 劉少奇는 마치 孔子가 德에 따라 大人과 小人의 등급을 정하고 거기에 입각하여 政治權力의 高低를 評價한 것처럼, 共產黨幹部도 다분히 道德의 기준에 따라서 그의 資質과 權限을 책정하여 주었는데, 毛澤東 역시 共產黨員은 전문성보다도 그가 얼마나 하층민의 生活像과 가까운가하는 倫理的 척도에 따라 평가되도록 요구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中國傳統이 본래 매우 社會主義的인 要素를 含蓄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세세히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에 관하여 적어도 다음 몇 가지는 想起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우

선 도교와 불교의 anarchist 的 전통은 유교의 民主政治像과 法家の 平等主義와 배합되어 分配的 正義觀을 中國에 뿌리 깊게 하였다 아니할 수 없다. 또 유교에서는 항상 부질없는 形而上學과 宗教문제에 政治가 간여할 것이 아니라고 一蹴해 버리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태도는 歷史와 具體의 현실에 관한 그의 관심에도 반영이 된다. 유교에서 大同社會의 논의와 易의 개념은 변증법이론과 共產主義의 유토피아와 너무나도 흡사하다.

전통의 現代性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現代의 傳統性도 무시할 수 없다. 무릇 社會主義運動 그 자체는 비록 그의 精巧한 理論的 構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解放을 渴永하는 民衆의 念願 즉, 解體(Negative Thinking)와 統一意志(Synthesis)의 현대적 표현이라고 할 때, 우리는 西歐의 諸般 歷史的 社會批判理論運動과 中國의 전통적 思想運動 사이에도 이러한 만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社會批判은 이미 現存하는 序階를 흔들고 새로운 방식으로 社會를 再構成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傳統이 항상 保守的이고 停滯된 bloc으로 보는 태도로도 毛澤東現象이나 中國社會主義를 제대로 조명·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IV. 結 語

우리는 한 社會를 설명하는데 있어 그것이 一般的 理論으로 다루어 질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區分해야 하리라고 보고, 그러한 입장에서 毛澤東思想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경우에서도 하나의 準據들이 아닌, 여러 相異한 方式을 援用하여, 다루는 對象을 살아있는 獨特하고도 複合的인 體係로 부각시키면서도 지나친 一般律을 회피하였으니, 이는 社會科學的 決定論과 人間創造의 自由領域을 조화시키는 설명방식을 本人이 中國의 현대역사에 적용시켜 본 것에 불과하다.